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남구 임암동에 개원



(사)코코넛 제공

광주시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이 최근 광주시 남구 임암동 중흥S클래스 에코파크에서 개원했다.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은 지난해 12월 남구청으로부터 (사)코코넛이 수탁을 받아 개원을 준비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만6세-12세 초등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코코넛 김시경 회장은 "방과 후 지역 아

동들을 위해 마련된 다함께 돌봄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사업"이라며 "아동들에게 더 알뜰한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 돌봄센터 에코파크 4호점 정경자 센터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최선을 다해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동구,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농악놀이' 릴레이공연 개최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인 '지신밟기 농악놀이' 릴레이공연을 개최했다.

'지신밟기 농악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이다.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며 지신(땅을 맡는 신령)을 달래고 복을 비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 당일 지역민들의 안녕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임택 동구청장이 '집집'이 됐다. 임 청장은 조선대학교 풍물연합회와 함께 13개동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진행했다. 공연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백신 접종 완료자 20명으로 꾸려졌다.

전날인 14일에는 지산동 오지호 화백 가옥 옆 당산나무에서 마을의 화합과 안녕, 무사를 기원하는 당산제와 더위잡기, 부럼 나누기 등 민속 나눔 행사도 개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가족밴드 '작은별가족' 강문수씨 별세



70~80년대 인기 가족 밴드 '작은별가족'을 꾸린 강문수씨가 지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유족 측은 고인이 이날 오전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1923년 함경남도 흥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국내 최초의 TV 방송인 HLKZ-TV를 비롯해 KBS, MBC, TBC 등에서 작가 겸 연출가로 일했으며 1949년 '늬은광대'를 선보이며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1975년 '사운드 오브 뮤직'을 표방한 가족 영화 '작은별'이 인기를 끌면서 서울대 음대 성악과 출신인 아내 주영숙씨, 6남 1녀의 친자녀들과 함께 가족 밴드 '작은별 가족'을 결성했다.

이듬해 TV 만화영화 주제곡 모음집을 발표하고 1977년에는 데뷔 음반을 내며 인기를 끌었다.

당시 밴드에서 활동한 외동딸 강애리씨는 1988년 솔로로 나서 '분홍 립스틱'을 히트시키기도 했다. 막내아들인 강인봉은 포크 그룹 자전적만족에서 활동하고 있다.

70년대 '유괴', '레인보우' 등을 연출한 고인은 80년대 공백기를 보내다가 1991년 복귀작 '어허 어어 어어 가리'로 대중상 영화제 특별작품을 받았다. /연합뉴스

전남CBS, 순천 장천동서 신사옥 착공식 개최

전남CBS는 15일 순천시 장천동 신사옥 부지에서 김학중 CBS재단 이사장과 유은옥 전남CBS 초대 운영이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남CBS 신사옥은 연면적 7775.5㎡, 지상 8층-지하 2층 규모로,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2003년 6월 10일 순천시 매곡동 현 사옥에서 개국한 전남CBS는 내년 개국 20주년을 신사옥에서 맞게 된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학중 CBS재단 이사장은 사재 1000만원을 건축 현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권신오 전남CBS 대표는 "전남CBS 최대현



(전남CBS 제공)

안이자 원원이던 신사옥을 건축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행·시공사와 협력해 방송시설이자 교회연합시설인 사옥을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미국 버지니아주도 '김치의 날' 제정

캘리포니아 이어 두번째

미국 버지니아주(州)에서도 김치의 날(11월 22일)을 기념하게 됐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건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사진)는 최근 버지니아주 의회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매년 11월22일을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로 제정하고 한국이 김치 중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버지니



아주 어린 신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크 김, 마커스 사이먼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

과 행사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뉴욕 한인회와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김치의 날 제정에 이숙희 주미대사의 도움이 컸다"며 "공사는 김치 수출 확대뿐 아니라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등 미 전역으로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내 '김치 붐'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스포츠 캐스터 배성재 아나운서

K리그 꿈나무 위해 3천만원 기부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 중인 배성재 아나운서가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통 큰 기부를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난 1월 'K리그 드림어시스트' 운영비로 사용될 달라는 뜻과 함께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K리그 드림어시스트'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현대오일뱅크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배 아나운서는 2012년에는 유소년 축구에 써달라는 뜻과 함께 보육원 및 저소득층 아이들로 구성된 경남FC 산하 15세 이하(U-15) 팀에 기부금을 전했다. 2014년에도 연맹이 운영하는 유소년 프로그램에 기부금을 내었다.

배 아나운서는 연맹을 통해 "내게는 매우 현장에 갈 수 있는 K리그가 월드컵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축구의 꺾음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the date of Feb 16th.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한국의 아침', '세계테마기행', and 'EBS 글로벌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6일(음 1월 16일 庚子)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fortune-telling text for each sign.